

[박사학위 논문소개]

•논문제목 :	Establishing Sustainabl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Facilitator for Learning Government
•학위취득자 :	강황선
•학위취득대학 :	Rutgers University
•학위취득년도 :	2001. 10
•지도교수 :	Marc Holzer
•학위명칭 :	행정학박사
•전공분야 :	공공관리

정부조직의 서비스 생산능력을 향상하고 효율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련의 노력들은 전체 행정학 역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이었고 때에 따라선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단명하거나(short-lived), 유명무실한 구호(potitical dancing)로만 존재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의 과제가 안정적으로(정치적 차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조직 문화적 차원) 논의되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변화라고 하는 요인으로 인해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겪기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변화만 거듭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많은 학자들의 지적이 바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많은 행정개혁 프로그램 중에서 이 논문은 특히 정부성과측정을 주요 소재로 하여, 앞서 말한 정치적,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개혁이 지속적인 연구과제로서 논의되고 그리고 공공조직 내에 정착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내 개혁능력을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조직학습이론으로부터 조직학습에 결정적인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요인들로 하여금 공공조직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조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직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조직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조직학습에 관련된 각종 문헌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검토하여 조직학습의 중요한 결정인자들을 도출하고자 했다. 광범위한 문헌조사가 범하기 쉬운 논리상의 지나친 비약과 조사자에 의한 원문내용의 자의적 생략 내지는 강조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자 무엇보다 노력하였다. 조직학습의 중요한 요소로서 네 가지를 도출했다. 첫째로 리더십(leadership), 둘째로 위기수용문화(risk-taking culture), 셋째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넷째로는 정보 및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이다. 이 네 가지 요인은 이 논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출된 변수들을 놓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무엇보다 이 네 가지 요소 이전에 공공조직에서의 조직학습의 개념 속에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조직 구성원간 동의가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요한 요소는 이 논문의 계량분석에서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로 설정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논문은 성과측정의 효용성(Utility)을 얼마나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개혁은 정치권력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료제내의 인적구성원들 사이에, 또한 조직문화 속에 행정개혁을 향한 정치권력의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속적인 성과측정체제의 구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근본적인 행정개혁의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조직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조직의 성과측정체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자 가장 방대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